

# 명실상부한 젊은문학인의 등용문

전북대, 국내 대학 최대 규모 문학상 공모... 총 800만 원 상금  
가람이병기청년시문학상 · 최명희청년소설문학상... 31일까지 접수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가 국내 대학 최대 규모의 문학상인 '가람이병기청년시문학상'과 '최명희청년소설문학상' (이하 문학상)을 공모한다.

총 상금 800만 원 규모로 전북대신문방송사와 혼불기념사업회·최명희문학관(대표 장성수)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공모전은 오는 8월 31일까지 작품을 접수받는다.

공모 분야는 대학생과 고등학생 부문 각각 시와 단편소설이며 시는 시조 포함 세 편 이상, 소설은 한 편 이상 제출해야 한다. 당선자에게는 상금을 주며, 당선 작품은 전북대신문 개교기념 특집호(10월 16일 예정)에 발표된다. 작품은 전북대신문방송사로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전북대는 한국 문학사에 기념비적인 공로를 세운 '난초 시인' 가람 이병기 선생과 '혼불'의 최명희 작가를 추모하고 문학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2001년부터 문학상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2017년 전북대학교 개교 70주년을 맞이해 총 상금 규모가 6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대폭 인상됐다.

문학상의 모태는 1955년부터 운영돼 오던 전북대신문 학생작품 현상모집이며 최명희 작가 역시 지난 1971년 '정유리'라는 작품으로 현상모집에서 당선의 영예를 안은 바 있다.

한편, 이 문학상은 한국 문단의 굵직한 신예를 발굴하며 명실상부한 문학인 등용문이 되고 있다. 권상혁·김보현·김학찬·손흥규·이갑수·전이리 소설가, 박성준·백상용·이혜미·조율(조윤희) 시인 등이 이 문학상 출신이다.

고등부 수상자들 역시 김승욱문학상, 김유정백일장, 대산대학문학상, 만해추천 전국고교생백일장, 문학동네 청소년문학상, 박재삼청소년문학상, 수주정소년문학상, 윤동주백일장, 전국지용정소년문학상, 한국청소년시나리오공모전, 한국청소년문학상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각종 공모전과 백일장을 휩쓸고 있다.



문학상 공모에 관한 문의는 전북대신문방송사(063-270-3536)로 하면 된다.

/장문성 기자



남원시 피양리에서 15일 전통세시 민속놀이인 삼동굿놀이를 재연한다.

## 남원시, 향토민속 삼동 굿놀이 재연 행사 개최

남원시 보절면에서는 광복절이자 음력 칠월 백중(百中)을 맞은 15일 피양리에서 전통세시 민속놀이인 삼동(三童)굿놀이를 재연한다.

삼동굿놀이보존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매년 백중날 마을의 무사와 종년농사를 기원하고 주민화합을 위해 열리는 민속놀이로 올해로 37회를 맞이했으며, 이날 행사는 당산제를 시작으로 기세배와 당산굿, 지네밧기 등의 삼동굿놀이 재연과 주민화합행사 등이 다

채롭게 진행될 예정이다.

삼동굿놀이는 고려 말 마을이 형성되면서 시작된 것으로, 양촌마을 뒷산인 계룡산이 지네모양으로 마치 닭을 해치려고 공격하는 형상을 하고 있다는 풍수설에 따라 매년 3명의 동자가 지네를 밧아주는 풍습에서 유래한 설과, 살아 있을 때 삼동굿놀이를 3번 이상 본 사람은 열라대왕이 천당으로 보낸다는 전설도 있다. 놀이에서는 출산, 성장, 입신출세까지의

상황이 묘사 되는 게 특징으로, 잡귀를 쫓아내어 마을의 번영과 주민의 안녕을 빌고 한해 농사일에 수고한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술과 음식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적 두레놀이 성격을 띠고 있다.

남원 삼동굿놀이는 1982년 전국 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고, 2001년에는 지역사회 특성과 프로그램으로 선정되어 금년에는 '전라북도 시골마을 작은축제' 남원시 대표축제로 선정되면서 주민주도, 지역민 화합 행사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 라이브 연주로 영화의 감동을 다시 만나다

정읍시예술회관에서 24일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공연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와 만나는 시네마 클래식 KOREA가 오는 24일 오후 4시 정읍시예술회관에서 공연된다.

공연은 대중들의 기억에 남아 있는 영화음악을 62인조 오케스트라의 라이브 연주와 지휘자의 해설로 관객에게 전달해 영화의 감동을 다시 한번 선사할 예정이다.

공연에서는 주라기 공연의 메인 테마곡을 시작으로 태극기 휘날리며의 에필로그, 울드보이의 마지막 왈츠와 외침과 속삭임 등이 연주된다. 특히 소프라노 박지홍과 테너 이영희의 협연은 공연을 더욱 풍성하게 할 예정이다.

공연 관계자는 "무더운 여름 가족과 함께 영화음악을 들으며 영화에서 느꼈던 감동을 다시 한번 느끼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연은 8세 이상 관람할 수 있다. 관람료는 전 좌석 1만원이다. 정읍시민과 장애인, 국가유공자에게는 50% 할인된다.

입장권은 티켓링크(☎1588-7800)를 통해 이달 12일부터 23일까지 예약할 수 있다.



한편 이번 공연은 2019년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9월에는 요리 퍼포먼스 아동극 '빵 굽는 포포 아저씨'가 공연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기자

## 익산시립도서관 1주 1책, '이 시를 그때 읽었더라면'

익산시립도서관은 이번주 1주 1책 도서로 영화평론가 신귀백의 추천도서인 안도현의 '이 시를 그때 읽었더라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시를 그때 읽었더라면'은 안도현 시인만의 문학적 감수성으로 가려 모은 65편의 시가 담겨 있는 책이다.

원로 황동규 시인의 시부터 이성복, 함민복, 장석남, 문태준 등 한국 최고 시인들의 빛나는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특히 시편들의 행간에 숨어 있는 의미를 안도현 시인은 특유의 섬세한 언어로 독자들에게 소개하고 있어 한 번에 다 읽지 않고 아껴서 읽는 맛이 있다.

신귀백 영화평론가는 "가까이서 지켜보면 안도현은 시를 제일 잘 쓰는 시인이기도 하면서 시를 제일 많이 읽는 시인"이라며 "시 한편 한 편이 모두 명작이어서 여름철 선풍기 앞에서 가만히 소리내서 읽다보면 더위도 물러갈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 캠핑하기 딱 좋은 곳... 무주 빨강치마리조트

홈페이지: <http://www.milmo.co.kr> 전화: 063-322-7000